

# 라이더유니온 “쿠팡이츠 배달료 삭감…결국 모두 손해”

### 라이더유니온 쿠팡이츠 본사 앞 기자회견

#### “쿠팡이츠, 배달료 삭감…3100원→2500원”

#### “전업라이더 일 못해…소비자·점주도 피해”

배달 노동자(라이더)들이 쿠팡이츠가 라이더에게 불리하게 배달료를 조정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소비자와 점주 모두가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라이더유니온은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이츠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츠는 라이더가 여러 배달음식을 묶어서 배달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배달 한 건당 2500원을 주면 최저임금도 벌기 힘들다”고 밝혔다.

라이더유니온은 성명서를 통해 “쿠

팡이츠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 배달 파트너 카카오톡플러스 친구 메시지를 통해 라이더들에게 배달료 삭감 소식을 알렸다. 내달 2일부터 기본 배달 수수료를 기존 3100원에서 2500원으로 삭감한다는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쿠팡이츠는 음식점으로부터 배달중개수수료까지 합쳐 6000원을 걷는다”며 “그럼에도 라이더에게 최소배달료로 2500원을 주겠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쿠팡이츠는 기본배달료를 설정해둔 후, 시간대에 따라 1분 단위로 할증을

붙여 배달료를 조정한다고 라이더유니온 관계자는 전했다.

라이더유니온은 그러면서 “라이더가 쉼을 배정하는 순간 자신의 배달료가 얼마로 바뀌었는지 예상하기 어렵다. 1분 전에 5000원인 줄 알고 기다렸다가, 막상 쉼을 받아보면 순식간에 3100원으로 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 쪼개기라는 신종 수법을 도입했다”며 “라이더가 음식점에 음식을 가지러 가는데 3~4km 떨어진 곳을 가기도 한다”고 했다.

지역 쪼개기는 한 구를 여러개 지역으로 나누는 방식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강남구를 강남 1~4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별 배달료를 다르게 책정한다는 것이다. 소수 지역에만 기본배달료를 웃도는 고가의 배달료가 산정되고, 대부분 지역은 비교적 저가 배달료를 책정된다고 한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이

날 “플랫폼 기업은 양쪽을 중개하면서 서로의 노동환경을 모르는 상황을 이용해 정보를 독점하고,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우리는 치타가 아니라 노동자다”며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했다. 쿠팡이츠가 배송이 빠르고 고객 만족도가 높은 매장에 ‘치타배달’ 배지를 다는 것을 차용한 표현이다.

이 단체 관계자도 “현재 단가로는 오토바이로 생계를 유지하려는 분들은 쿠팡이츠 일을 할 수 없다”며 “쿠팡이츠는 자전거, 자동차, 전동킥보드를 활용해서 배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결국 서비스 품질은 떨어질 것이고, 상점주와 소비자 모두 피해를 볼 것이다”고 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이날 ▲최소 배달 단가 4000원 이상 유지 ▲시간제 보험 도입 ▲배달료 정산 정보 제공 ▲



라이더유니온 노동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열린 ‘쿠팡이츠의 일방적인 배달 수수료 삭감 정책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재직증명서 및 해직증명서 등 서류 발급 ▲과적 배달에 대한 프로모션 제공 등 10대 요구안도 발표했다. 김민정기자



메가마트, 설 맞이 제수용 농산물 할인행사 메가마트는 오는 9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하는 설을 맞아 사과와 배, 무, 애호박 등 인기 제수용 농산물을 최대 30% 할인 판매하는 '대한민국 농산물 할인행사' 행사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부산 메가마트 동래점에서 직원들이 제수용 과일을 선보이고 있는 모습.

## 11분기, 지난해 98억 적자...코로나로 여행·레저 직격

### “코로나19 대응으로 비용 통제 어려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여행, 레저 카테고리 등의 매출이 부진해지면서 11분기가 지난해 동기 대비 151억원 늘었다. 영업 손익은 98억원으로 2019년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

여행, 레저, 패션, 뷰티 분야의 판매가 저조해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생필품 배송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마케팅 비용도 늘었다.

11분기는 “2020년 코로나19의 영

향으로 예측 불가능한 시장 상황에 적극 대응하느라 비용 통제의 어려움이 있었다”면서도 “효율적 마케팅 비용 집행으로 전년 대비 거래액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면서도 손익분기점(BEP)에 근접한 영업손실을 기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4분기(10~12월) 실적을 보면 매출액 152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 영업손실은 14억원으로 1년 전보다 22억원 개선됐다.

11분기는 독립법인 출범 후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수백억 원 이상의 영업손익 개선을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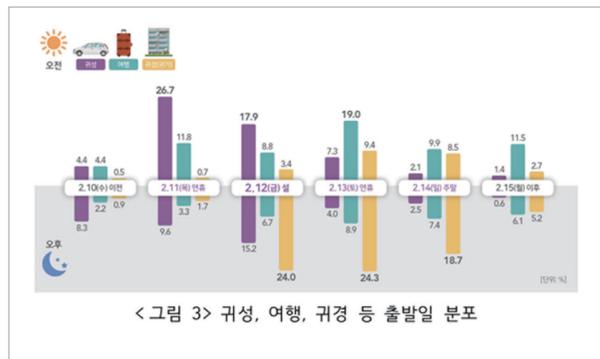
중이다.

회사 측은 올해도 두 자릿수 거래액 성장과 BEP 수준의 영업손익을 동시에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내의 사업자와의 제휴 확대 ▲실시간 소통 기반 라이브 커머스 강화 ▲당일배송 등 배송서비스 품질 제고 ▲판매대금에 대한 빠른정산 지속 ▲판매자와 상생협력과 선순환 효과 강조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호 11분기 사장은 “코로나19로 도래한 비대면 시대는 이커머스 사업자에게 성장의 기회와 함께 경쟁력을 검증받는 시간이 됐다”며 “11분기는 라이브커머스 등 독보적 쇼핑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설 연휴 고속도로 11일 오전·12일 오후 가장 막힌다

### 고속도로 통행료 부과...하루 401만대·전년비 14.9%↓



올해 설 연휴 기간 귀성은 설 전날인 11일 오전 9~10시, 귀경은 설날 당일인 12일 오후 2~3시에 고속도로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부과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2월10~14일) 교통수요 전망을 위해 지난달 7~26일 9398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기간 총 2192만 명, 하루 평균 438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지난해 설 연휴 기간보다 32.6%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설 연휴 기간(1월24~27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로나19) 국내 확진자가 하루 평균 10명 이하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설 연휴 이동수요가 예년에 비해 거의 줄지 않았다.

올해는 국민들의 이용 교통수단도 승용차가 93.5%로 가장 많았고, 버스(3.4%), 철도(2.3%) 항공기(0.6%) 여객선(0.2%) 순으로 조사됐다.

올해 설 자가용 분담율 93.5%는 최근 5년 자가용 분담율 86.2%를 크게 넘어서는 것이다.

고속도로 이용 차량대수는 하루 평균 401만대로 전년 대비 14.9%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귀성 출발이 집중되는 설 전날(11일) 오전 9~10시와 귀경객, 귀경객, 여행객이 동시에

몰리는 설날 당일(12일) 오후 2~3시가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량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는 경부선(24.5%)이었고, 호남선(천안~논산) 11%, 서해안선 10.8%, 중앙선 8.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교통량 감소로 예년에 비해 소요시간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귀성 소요시간은 전년 대비 최대 2시간30분이 줄어들고 귀경 소요시간은 최대 2시간50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귀성, 귀경 모두 서울~부산 구간은 평균 5시간40분, 목포~서서울 구간은 4시간50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총 이동인원 2192만 명의 날짜별 이동 수량을 보면 10일 413만 명, 11일 428만 명, 12일 545만 명, 13일 449만 명, 14일 357만 명 등으로 조사됐다. 귀성 출발은 설 전날 11일 오전이 26.7%로 가장 많았고, 귀경 출발은 설 다음날인 13일 오후가 33.7%로 가장 많았다.

귀성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우려’(60%)가 가장 많았고, 그 외 ‘고향 거주 또는 명절에 이동하지 않음’(16.1%), ‘교통 혼잡’(8.2%), ‘업무’(4.7%), ‘지출비용 부담’(4.2%), ‘역귀성’(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동취재본부

## 정부, 설 전까지 수입계란 2000만개 푼다...사과·배 공급 확대

### 2월 말까지 약 2400만개 추가 수입...쏠유통 과정 점검 매점매석 고시 지정 등 통해 시장 교란행위 적극 대응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가격이 급상승한 계란을 수입해 즉시 시장에 내놓기로 했다. 사과·배 등 설 성수기에 수요가 집중된 품목의 공급도 확대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높은 가격 상승세를 보이는 일부 설 성수품의 가격 안정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는 기재부를 포함해 농림축산식품부, 농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정부와 민간의 관련 기관이 참석했다.

이와 관련해 김 차관은 “최근 AI 확산 등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는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설 전인 10일까지 약 2000만개를 수입해 조속히 시장에 유통할 계획”이라며 “설 이후 2월 말까지 약 2400만개를 추가 수입

하고 AI 지속 발생 등으로 계란 수급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추가 수입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계란의 신속한 수입 및 원활한 국내 유통을 위해 현지 수출업체와 확보, 통관절차 및 난각표시·포장 강화 등 계란 유통 전(全) 과정에 걸쳐 집중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농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설 성수기에 수요가 집중되는 품목인 사과와 배는 평시 대비 2.1배, 배는 1.9배로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 공급자들이 현재 저장·보유하고 있는 사과·배 등이 조기에 시장에 출하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계란 등 성수품 가격 안정을 통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대형마트와 간담회 등을 통해 주요 유통업체 관계자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또 일부 시장 참여자들의 매점매석 가능성 등에 대비해 유통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매점매석 고시 지정 등을 통해 시장교란 행위에 적극 대응한다.

김 차관은 “유통 교란 행위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4일까지 정부-지자체 공동으로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시·군·구별로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 물가 안정 대책반’도 구성·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 ‘동네슈퍼 800개, 스마트슈퍼로’...심야에 무인 운영

### 올해부터 연간 800개씩 5년간 4000개 스마트슈퍼 육성

전국의 동네슈퍼 800곳이 올해 중 낫에는 유인, 심야에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스마트슈퍼’로 간판을 바꿔달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와 함께 올해 스마트슈퍼 800개를 육성한다고 4일 밝혔다.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은 동네슈퍼에 출입인증장치, 무인 계산대 등 무인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장비를 도입해 소상공인이 야간시간에 추

가 매출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1호점은 지난해 9월 28일 개장해 운영 중인 서울 동작구 소재 형제슈퍼다. 중기부는 지난해 형제슈퍼를 비롯한 5개 동네슈퍼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했다.

스마트슈퍼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초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4일부터 26일까지 중기부에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가 스마트슈퍼 육성사



에 참여할 지자체를 선정하면 지자체는 관할 지역 동네슈퍼 중 희망 점포의 신청을 받아 현장평가 등을 거쳐 스마트슈퍼 전환을 지원한다. 신청방법과 제출서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이슬기자